<인터넷 프로토콜>

작성자_2018320161_송대선 작성일_05_16

<TCP>

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. 95% 이상의 transport 계층이 TCP를 쓴다.

-Service model of TCP-

Connection-Oriented: TCP를 쓰려면 "연결"이 필요하다.

Reliable: 반드시 배달해 준다. 믿고 쓸 수 있다. ->TCP는 반드시 배달한다.

Inorder delivery: 배달의 순서를 지킨다. 먼저 온 데이터를 먼저 받아야 한다. TCP는 순서가 뒤바뀌면 응용에게 데이터를 주지 않음

Full-duplex: 동시에 양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. TCP는 채널을 2개 열어준다.

-MSS-

TCP는 Bytes들을 잘라서 Segment로 만든다. -> 여기서 Path MTU가 필요하다. IP의 DF=1이면 크기 제한을 넘어가는 패킷을 죽이고, 그에 대한 정보를 host쪽으로 넘김 ->TCP가 이를 확인하고, MTU를 재조정해서 다시 보냄

Maximum Segment Size(MSS) = (문제가 된 MTU) - 40B MSS는 TCP segment에서 TCP Header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.

MTU = IP Header + TCP Header + MSS
MSS가 최대가 되려면 IP Header, TCP Header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.
-> IP Header, TCP Header에 Option이 없어야 한다.
-> Option이 없는 IP Header, TCP Header의 길이가 20B이다.
그래서 MSS = MTU - 40B이다.

Ethernet의 MTU가 1500B이면, MSS는 1460B이다.

-TCP Header format-

Source Port, Destination Port: Multiplex, Demultiplex

Sequence number: TCP의 모든 Byte들 각각에는 Sequence Number가 부여된다. -> 0, 1같은 문자들이 아니라 이상한 random해 보이는 숫자들을 붙인다

Acknowledge number: 수신 측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Segment의 sequence numb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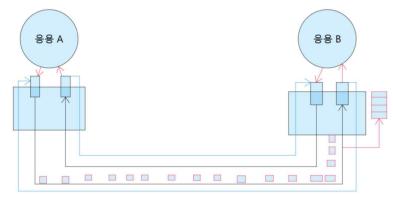
Header legnth: 4B씩 센다.

15->60byte, 60-20=40, 40Byte7} Option

Flag:

Window Size:

Checksum: 16bit씩 packet을 잘라 더하고 보수로 바꾸면 checksum이다.



A->B인 채널을 설명해 보겠다.

1. 송신자인 응용 A는 socket buffer에 data를 쏟아붙는다.

(socket buffer는 circular queue이다.)

- 2. A는 자신의 socket buffer에 있는 data의 copy를 B를 향해 보낸다.
- 3. 수신자가 data를 받아서 순서에 맞으면 socket에 넘기고 ACK를 한다.

(맨 마지막 data의 sequence number가 "x"이면 "x+1"을 달라고 ACK한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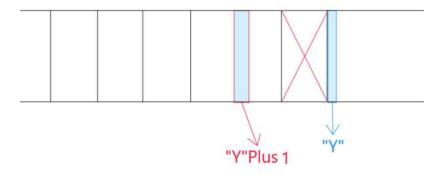
(Socket에 들어가면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.)

4. ACK를 받은 TCP A는 자신의 socket buffer에서 "x"에 대한 copy를 지운다.

reordering buffer: 마지막으로 받았던 data의 sequence 번호가 y인데 y+1이 아닌 다른 번호가 오면 reordering buffer에 그 data를 저장한다.

다른 것들이 reordering buffer에 들어갈 때마다 "y+1"로 ACK한다.

Header에 실리는 Sequence Number는 맨 앞의 Sequence Number이다.



-Synchronize (SYN)-

: TCP 연결에 필요한 3가지 숫자를 알려줌

A는 A->B에 대한 2개, B->A에 대한 1개

B는 B->A에 대한 2개, A->B에 대한 1개

-> total 6개의 숫자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동일해야 한다.

숫자 3개는

- 1. Maximum Segment Size (MSS)
- 2. Initial Sequence Number (ISN)
- 3. Window Size
- 이 3가지이다.

Flag에서 SYN=1이면 SYN하는 것이다.

SYN=1이면 data는 없고, header만 있다.

처음에는 initial sequence number, 최대 window size가 담겨있다.

최대 window size는 처음에는 socket buffer가 비어있음으로 처음의 window size가 된다.

Window size를 알아야 flow control이 가능하다.

-> 이걸 알아야 내가 얼마를 보냈으니, 얼마를 더 보내도 되겠다 하는 계산이 가능하다.

socket buffer는 왜 필요한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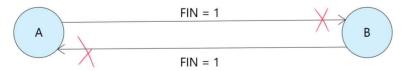
-> window process가 항상 가동되는 것이 아니기에 임시 저장공간이 필요해서

MSS는 왜 필요한가?

그 상대방도 같은 링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놓기 때문.

A, B 서로 자신의 MSS를 알려주고 그 중 최솟값을 선택한다.

-Finish (FIN)- : 연결을 끊자 (graceful manner-> 순조롭게 끊자) Flag의 FIN=1이면 끊는 것이다.



-Reset(RST)-

Flag의 RST=1이면 Reset이다. -> kill them all이라는 뜻이다. 이유:

- 1. 게으른 서버: 다 보낸 것을 서버가 알면, 그냥 reset해버림
- 2. port에 아무도 안 살면 그냥 reset해 버림

-ACK-

ACK=0은 처음에 SYN Segment뿐이다.

-Push(PSH)-

Flag의 PSH=1이면 push이다.

원래는 "빨리 보내주세요"라는 의미였는데, 요즘은 기능적인 역할이 없다. (원래 빨리 보낸다.)

PSH=1이면 "떠날 때 보니 뒤에 아무 data가 없더라"라는 의미이다.